



16면

황선우, 아시아 최고 기록 세웠다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1년 7월 30일 금요일 (음 6월 21일) 제2832호

대표전화 (063)288-9700



최훈 행정부지사는 기획재정부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을 찾아 도정 현안 관련 핵심사업 예산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

“김제 용지 ·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 예산 필요”

최훈 행정부지사, 기재부 찾아 새만금 수질 개선 등 도정 현안 반영 건의

전북도가 예산심의가 한창인 기획재정부를 찾아가 새만금 수질 개선 전 북역사 재조명을 통한 정체성 확보 등 도정 현안 관련 핵심사업 예산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최훈 행정부지사는 김완섭 예산총괄 심의관 강원구 사회예산심의관 등을 차례로 만나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김제 용지와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의 정부예산안 반영을 적극 건의하며, 막바지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익산 왕궁 정착농원 잔여 현업축사 매입을 위해 도에서 요구한 311억원 전액 반영과 함께, 김제 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을 위해 내년도 예산 100억원 반영을 강력 요청했다.

또한, 도동서원이 있었던 부안군에 건립 예정인 전라유학진흥원의 시설비로 국비 48억 원 반영과 함께, 무성서원의 가치와 정신을 보급하는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을 위한 기본계

획 설계비로 국비 1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

아울러, 동학농민혁명 성지화를 위해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시설비 10억 원과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실시예를 용역비 5억 원 반영도 건의했다.

이외에도, 동물용의약품 연구·개발 관련 핵심기술을 보유하고도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제품 제작 시설이 없어 의약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시설 구축' 용역비로 국비 7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최훈 행정부지사는 한경호 재정관리국장을 만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대상사업 12건의 일괄예타 통과를 비롯해 심사 진행중인 전북도 예타사업의 통과도 건의했다. 노을대교 등 국도·국지도 5개년계

획 대상사업 12건의 일괄예타 통과와 함께, 기획재정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통해 진행 중인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과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이 예타에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한 총사업비 증액으로 적정성 재심사가 진행중인 '재생에너지 디지털 축' 사업의 심사 통과와 함께, 지난 6월 산업부에서 기재부로 재신청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예타대상 선정도 적극 건의했다.

한편, 도는 기재부 단계 대응을 앞당기고, 8월 초까지 국가예산 확보 활동 특별주간으로 정해, 과소·미반영 사업의 반영을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토 · 일요일 신문 쉽니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익산에 유치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합력 농공단지’ 최종 선정
총사업비 231억원 투입 올 하반기 착수 2024년 완공

전북도는 농식품부가 주관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공모사업에 익산시(합력 농공단지)가 최종 선정되며, 국비 231억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5대 유망산업의 한 축으로 농생명 산업의 외연 확장과 산업화를 견인하며, 그린바이오 벤처 창업자들에게 요람과 같은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에 착수해 오는 2024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사업은 벤처 지원시설, 연구실험시설, 운영 지원 시설 등을 부지면적 2만8000㎡에 연면적 7,066㎡를 건립하는 국가가 추진하는 첫 사업으로, 그린바이오 벤처기업이 입주해 연구와 실험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도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유치 확정으로 그동안 5개 시·도와 치열한 경쟁 구도에 마침표를 찍으며, 도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사업과 전북형 그린뉴딜 사업에 큰 모멘텀으로 작용, 사업추진 가속화가 예상된다. 도는 이번 공모 경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민선 6, 7기에 꾸준히 추진해온 ‘삼락농정’의 결실로 보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 타 시·도의 공세에 맞선 도는 그간 삼락농정 일환으로 밀비탕이 된 농생명 인프라 생태계와 연계한 전략으로 대응했다.

아울러, 삼락농정 일환으로 추진한 종자, 식품, 미생물, 첨단농업, 동물용의약품 등 굵직한 클러스터 생태계가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도는 이번 공모유치를 위해 도와 익산시, 전북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가 TF를 꾸려 4중주 협업으로 대응했다.

송하진 지사는 IPT 발표자료 동영상에서 그간 전북도가 추진해온 농생명 관련 클러스터의 생태계를 강조하고, 모든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유치를 호소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본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건립 부지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했으며, 현장평가에서는 직접 브리핑을 담당하고, 대면 평가에서 평가위원들의 질의에 꼼꼼한 답변으로 평가위원들의 신뢰를 받았다. /유호상 기자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

또한, 국회 상임위원 등 전북의 정치권도 본사업 유치가 남다른 관심을 갖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와 익산시, 전북연구원, 전북TP가 4중주를 연주하듯 이뤄낸 건밀한 협업의 산물이다”라며 그동안 적극적으로 협업해주시는 기관에 고마움을 전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공모 사업으로 추진되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그동안 전북도가 삼락농정 일환으로 추진해 온 강력한 농생명 생태계 육성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며 그린 바이오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유희철 선임 전북대병원장 임명

전북대학교병원 선임 병원장에 간담체 이식혈관외과 유희철 교수가 임명됐다.



29일 전북대병원에서 열린 전북대병원 제148차 이사회에서 임용 후보자로 추천된 유희철 교수를 제21대 병원장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30일 특별주간으로 정해, 과소·미반영 사업의 반영을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유희철 선임 병원장은 전북대 의과대학을 나와 동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충청 호남권 최초로 간종양 환자 등에게 로봇을 이용한 간 절제술에 성공하는 등 외과 분야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김윤상 기자

도, 하반기 3단계 공공일자리 추가 마련

생활방역 등 3000여명 규모

전북도가 하반기 3단계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취약계층 3,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번 일자리는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지원과 시급한 방역수요에 대응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는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 추경으로 총사업비 80억원 중 90%인 72억원을 확보해 3,000여명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근무 분야는 대국민 백신접종 지원, 생활방역, 환경개선, 공공서비스 지원 등이며, 근무 기간은 9월부터 3개월간이다. /유호상 기자

참여대상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실직자와 휴·폐업자,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등이다. 다만, 긴급하게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기 위해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참여가 제한된다.

8월 초 각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을 공고해 8월 중 참여자를 선발, 9월부터 근무자에 투입될 예정이다.

도는 공공일자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관련기관의 정보제공 등의 컨설팅을 실시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추가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이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국민 정재홍·서관우·조운영 님이 제안한 광고입니다. - 2021 광고공모 수상작